



전주한옥마을에서 여름철을 맞아 시원한 부채를 주제로 한 절기축제가 펼쳐진다. 사진은 성악가 그룹 브렌데레의 공연 사진.

‘전주부채, 여름아 꿈썩 마’

전주부채문화관, 내일 한옥마을 절기축제 개최
길놀이·초대전·성악공연·부채나눔 등 ‘풍성’

국가대표 여행자인 전주한옥마을에서 여름철을 맞아 시원한 부채를 주제로 한 절기축제가 펼쳐진다. 전주부채문화관은 내일 전주한옥마을 절기축제 하지(夏至 6월 22일) 절기 행사인 ‘전주부채, 여름아 꿈썩 마’를 진행한다. 이날 부채문화관 등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는 여름의 초입인 하지에 바람을 일으켜 시원한 휴식을 주는 주제로 부채를 매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한옥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공동품물패’와 전문품물패인 ‘소리樂’ 등이 연합한 ‘길놀이’를 시작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선자장 김동식 초대전과 특강 및 부채 제작 시연 △전국부채사진공모전 시상식 및 아외전시 △전주부채를 든 성악 그룹 브렌데레 공연 △2019 신상품인 ‘전주 보다리’ 부채 나눔 행사 등이 진행된다. 또한 전주한옥마을 7개 문화시설의 특색있는 체험·홍보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여섯 가지 이상의 접점놀이와 부채행사가 관람객을 맞이하게 된다. 특히 이번 한옥마을절기축제인 ‘여름아 꿈썩 마’를 주목할만한 이유는 이 행사가 지역예술

인·전주시민·여행객, 문화시설 등과 함께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지역예술가의 경우 초대전과 특강, 부채제작 시연을 맡은 국가무형문화재 김동식 선자장과 전국부채사진공모전 심사를 맡은 사진작가 유백연, 특별 배포되는 ‘전주 보다리’ 부채를 제작한 관화가 유대수와 선자장 방화선, 젊은 성악가 그룹 ‘브렌데레’ 등 다양하다. 또 한국화가 이봉금·최미현은 절기축전에 앞서 27일 전주중앙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선문화 체험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한옥마을 5개 문화시설(소리·술·부채·희명희·완관본·문화관)과 전주한벽문화관·전통문화연구원 등 7개의 문화시설의 다채로운 전문문화 체험·홍보 행사도 함께 한다. 이들 문화시설은 각기 소리체험·음식나눔기·부채 선문화 체험·꽃갈피 만들기·창작 목판화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무료 체험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절기축제에서는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풍선 아트와 페이스페인팅도 진행되며, 전주부채문화관 시니어 도슨트와 20여명의 학생 자원봉사자가 행사를 함께 진행하게 된다. 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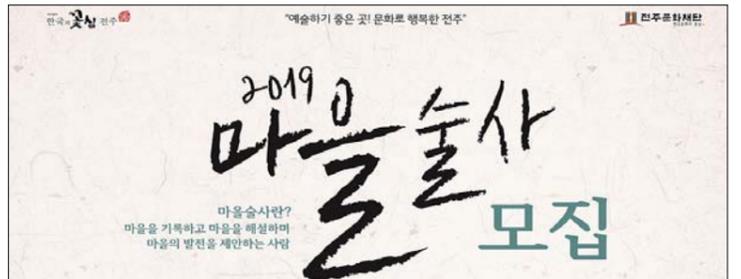
대학교 영상방송제작학과 학생들은 행사 전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해 소중한 축제를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다. 이날 전주한옥마을에서는 5개 문화시설 체험 스탬프 릴레이 행사가 진행되고 당일 젓가·대왕장기·김중환장기·고치고부치고 참여·공연 행사 페이스북 업로드 등 행사에 적극 참여한 관람객에게는 ‘특별한’ 부채도 주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식후행사로 전주전통술박물관 주관으로 전주한옥마을 내 다문에서 ‘전주 8시, 한벽 모래무지’ 주안상을 주제로 ‘절기주와 주안상’ 여름 프로그램이 진행돼 전주한옥마을 주민과 시민, 여행객 등이 소리꾼과 잔주가를 함께 부르며 흥을 더하여 화합과 소통의 장을 연출하게 된다. 이번 절기축제가 이어 오는 소서(小暑, 7월 7일)와 칠석(七夕, 8월 7일)에는 각각 희명희문화관과 완관본문화관이 중심이 돼 절기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전주한옥마을 절기축제는 한옥마을 주민을 비롯한 전주시민과 여행객, 문화시설 등이 함께 한옥마을을 더욱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축제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문화시설 특화 사업을 꾸준히 발굴·확충해 다시 찾고 싶은 한옥마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기자

재미와 창의력을 동시에!

군산예술의전당, 내일부터 ‘브릭 사이언스파크 체험전’ 개최

다양한 블록으로 나만의 창작물을 만들며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브릭 사이언스파크’ 체험전이 열린다. 군산예술의전당은 여름방학을 맞아 브릭으로 나만의 창작물을 만들며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브릭 사이언스파크’ 체험전시를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30일간 군산예술의전당 2, 3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체험전으로 ‘브릭(Brick)’을 주 테마로 무엇이든 창작해 만들고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총 12개의 존으로 구성돼 단순히 브릭을 조립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체험이 가능하다. 12가지 프로그램 중 믹스브릭존은 다양한 색깔과 크기의 브릭으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 전시할 수 있으며 조립체험존에서는 설명서를 따라 작품을 조립할 수 있으며 레이싱트랙존에서는 브릭으로 만들어진 자동차로 실제 모형 트랙에서

경주해 볼 수 있으며 빅브릭 플레이존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브릭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 브릭을 이용해 만들어진 예술작품들을 만나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전시 및 포토존도 마련했다. 군산예술의전당 주현노 관리과장은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이번 체험전은 어린이들에게는 재미와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어른들에게는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선사할 것”이라며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과 함께 군산예술의전당에서 멋진 브릭 작품과 추억을 만들어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만 24개월 이상부터 입장 가능하며 어린이 8,000원 성인 3,000원 단체(10명이상) 5,000원이며 VR 체험에는 어린이 10,000원 성인 5,000원 단체 7,000원으로 티켓링크에서 판매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http://arts.gunsan.go.kr>)을 통해 알 수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문화재단, 전주 대표하는 ‘마을미술사’ 35명 모집

전주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전주시 마을 자원을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체를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2019 마을미술사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마을미술사’는 마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마을을 해설하며 마을의 발전을 제안하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이번 마을미술사 양성 사업은 2015년부터 약 4년간 재단에서 진행한 ‘전주시 마을 조사서’를 활용해 마을 기록 및 해설, 기획 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것이다. 특히 전주시 35개 행정동과 구도심 아시아 문화심장터 100명평을 대표하는 마을미술사 35명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양성과정은 오는 7월 17일부터 8월 28일까지(매주 수·금 오후 2시~5시) 총 12차례에 걸쳐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중 일반과정에서는 전주시 문화 자원의 이해, 마을 이야기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방법, 현장실습을 통해 마을 답사 경로 개발과 마을 해설 실습 등이 이뤄진다. 심화과정은 마을 콘텐츠 기획(마을 축제, 미디어, 캐릭터 등)과 마을 사업 창업(전통주) 과정 등 2가지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수료자에게는 마을 해설(강사) 활동을 지원하며, 우수한 마을 콘텐츠 기획 또는 창업을 위해 최대 4명을 선발하고 총 1200만원(1팀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모집 기간은 내달 12일까지이며, 창의적 발상으로 마을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전주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www.jcf.or.kr) 공지사항을 통해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jcf_run@mvr.com)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뉴스

전북은행,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진짜진짜 옹고집’ 성료... 웃음과 감동의 무대 큰 호응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최근 전주 한벽문화관에서 문화에 관심 있는 도민과 청소년 200여명이 참석해 제15회 ‘2019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문화 공연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하고 문화예술로 더 행복한 전북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공연팀을 선정해 2015년부터 ‘문화가 있는 날’을 진행하고 있다. 무대에서 선보인 공연 ‘진짜진짜 옹고집’은

전주문화재단 한옥마을 상설공연단의 여덟 번째 공연으로, 권선징악(勸善懲惡)의 뚜렷한 주제와 관객이 공연에 직접 참여하고 배우들과 호흡하는 관객참여형 공연으로 진행됐다. 이에, 청소년 및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흥겨운 우리가락과 해악과 풍자, 재치와 유머 가득한 배우들의 연기와 화려한 무대장치로 관객들에게 현장감 넘치는 공연을 선사했다. 또한, 공연에 앞서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김준형 선임조사서의 금융사기예방과 관련한 교

육이 진행되어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다. 공연을 관람한 관객들은 ‘아이와 함께 공연을 봤는데 교육적이어서 좋았다, 관객참여형 공연이라 좋았다, 감동과 재미가 함께 있는 무대였다’라고 관람 후기를 밝혔다. 한편,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은 매년 6월과 11월에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진행되며, 공연에 관심 있는 전북도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